

### 다산포럼

성유보



은 국민이 참여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던 저 87년 6월항쟁이 올해로서 스무 돌을 맞는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6월항쟁사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별반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치부해 왔다. 스무 돌을 맞아 이제 겨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6월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6월항쟁처럼 민족 전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대는 흔치 않다. 19세기 말의 동학농민혁명이 그러했다고나 할까?

더구나 민족의 요구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역사는 삼국시대 이래 유일무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국민들이 거의 괴를 흘리지 않고서 말이다.

육의 타라면 6월항쟁 직후인 87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80년 군사쿠데타의 주역 중의 한명이던 노태우씨를 직선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87년 당시 민중들의 공통적 요구의 핵심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였고, 이 대통령 직선제는 흔들림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태우씨의 일시적 등장은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체제가 바뀌어가는 과정상의 에피소드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필자가 6월항쟁을 6월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다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6월항쟁은 온 국민이 총단결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한국사

에서 최초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민은 1960년 4월혁명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크게 진전시킨 바 있다. 그러나 4월혁명은 그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를 맞아 좌절함으로써 백내장교수의 주장대로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 있었다.

둘째, 87년 당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실천적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전두환 정권은 친위쿠데타 같은 온갖 반격을 획책했으나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세력도 힘으로 한국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망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 87년 6월항

쟁의 대미를 장식했던 6.26 시위에는 경찰 추산으로도 전국적으로 4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온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인 시위에서 폭력과 유혈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셋째, 6월항쟁 이후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어떤 정치세력도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왔다. 앞으로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집권 프리미엄을 권력연장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어떤 정치세력이 나타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6월항쟁의 정신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살아

1789년의 프랑스혁명만 해도 항후 80년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1870년대에 가서야 공화정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1804~1814년간의 나폴레옹 왕정, 루이 18세의 왕정(1814~1824), 샤를10세 왕정(1824~1830), 루이 필립 왕정(1830~1848), 루이 보나파르트 공화정(1848~1852), 루이 보나파르트 왕정(1852~1870), 빠리 코뮌(1871), 제3공화정(1871년 이후)이 프랑스대혁명 이후 80년간의 프랑스 정치사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6월항쟁을 6월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치에 닿지 않는 점이 있겠는가?

그러나 항쟁이냐? 혁명이냐? 하는 명칭보다는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87년 6월항쟁이 되었든, 87년 6월혁명이 되었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싹을 더욱 가꾸고 풍성하게 해야 할 사람들은 20년 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혁명사에서도 깨달을 수 있듯이, 멈춰서 있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87년 항쟁을 혁명으로 여길 만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그 덕을 보려고만 할 게 아니라,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아가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고요? 우리 다 함께 찾아야겠죠! <인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6월항쟁은 6월혁명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김옥현



5월이다. 망월동에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 광주역의 거리는 80년 5월 군부독재에 대항해 죽음을 넘어 공동체 세상을 건설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담은 5월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87년 6월, 남녀노소 모두 혼연일체가 돼 독재타도·직선제 쟁취를 요구하여 군부독재에 항복을 받은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된다. 광주지역에서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은 행사가 진행돼 2007년 금남로는 살아있는 민주주

전두환 정권 퇴진과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18일 망월동에서 5·18민중항쟁 7주년 추모식을 열고 전국 처음으로 '4·13호헌조치 반대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해 이후 전국적인 조직 '범국민운동본부'가 조직되는 계기가 됐다.

6월 9일 광주출신 연세대생 이현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마음으로는 지지를 보내던 시민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 5월이 씨 뿌리고 6월이 꽃 피워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80년 광주를 총칼로 밟고 등장한 5공화국의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계기가 돼 종교계·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한국 현대사의 큰 변화였다.

독재정권·고문정권·전두환정권 퇴진과 우리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전 국민적인 요구의 분출로 시작했다.

전 국민적인 요구에 위기를 느낀 전두환정권은 4월 13일 호헌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광주에서는 4월 17일 천주교 사제들의 '4·13폭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열망을 배신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십자가를 지지'라고 결의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종교계뿐 아니라 학계·노동계·예술계 등 사회 단체들의 사극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에 동참했다. 연일 광주학살

거리로 뛰쳐나왔다. 6월 10일, 민정당이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던 그날, 전국에서는 '독재타도·직선제 쟁취'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6월 26일에 있었던 '평화 대행진'의 날에는 전국에서 1백80만명의 남녀노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대통령 후보는 체육관선거가 아닌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여졌다. 내용은 '시국 수습을 위한 8개항'을 선언한다. 바로 이 8개항의 항복문서가 '6·29선언'이었던 것이다.

민주화 요구의 물결이 넘쳐나는데 노동자들은 민주노조건설에, 농민은 수세거부 투쟁으로 사회단체는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군부독재에 맞서 80년 5월이 민주화의 씨를 뿌렸다면, 87년 6월항쟁은 온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화의 나무를 키워낸 것이다. <6월항쟁행사준비위 사무처장>

## 서로의 종교를 이해해주고 존중하는 넓은 마음 필요

기독교계 미션스쿨이 그렇듯 우리 아이는 1주일엔 한번씩 예배를 드리는 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불교 신자인 우리 아이는 하나니엔을 찬양하는 집회에 굳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예배실에 가는 것을 무척 곤혹스러워 한다. 그러다가 예배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마다 급우들중 일부와 기독교를 믿는 동급생 친구들이 아주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서 무척 힘들어 한다.

당연한 불참이지만 주변에서는 "왜 예배에 불참했나. 도도한 척하지 마라! 사회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니 뭐는 행동 하지 말라." 등의 편견을 들으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게 아니다.

종교가 다른 것이 왜 뭐는 행동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 선생님과 학생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학교에서 예배 불참은 어쩌면 낯은 학교생활을 잘 지내기에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나?

그리고 바꾸어 생각한다면, 불교계 학교에 들어간 기독교인에게 법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했다면 과연 순순히 응했을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듯 해서 안타깝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넓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송양빈·목포시 온금동



## '코아티'의 얼룩진 꼬리 역할은



남미의 너구리라는 코아티(일명 긴코 너구리)가 우리 동물원의 새 식구가 됐다. 모두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다투기가 만만치가 않다.

예전 동물원에서는 아재나 과일도 잘 먹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 동물원에서는 이를 동안이나 거부했다. 아무 것도 먹지를 않는 것이다.

'네가 버티는구나. 얼마나 가나 보자'며 기다렸더니 이를 만에 달고기부터 먹기 시작했다. 사람처럼 맛있는 것부터 먹는다. 그럼 그렇지, 배고프면 당연히 먹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사육사들이다.

이 녀석들의 특징은 긴 주둥이와 얼룩무늬 꼬리다. 긴 주둥이는 땅을 파서 먹는데 유용한 도구다. 멧돼지와 비슷하다. 긴 꼬 덕분에 땅 속에 있는 음식물

도 만만한 것이면 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코아티 역시 땅속의 곰팡이에서 쥐까지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다.

길고 얼룩무늬가 있는 꼬리는 단점도 많다. 재규어같은 천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선 별로 좋지 않은 장식물이다. 마다카스카르섬의 알락꼬리 원숭이나 중국의 페서펜더의 꼬리가 길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어찌보면 그곳에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쟁거구나 수달의 꼬리도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길게 발달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녀석들의 꼬리는 거의 장식에 가깝다. 색다른 기능도 있다. 바로 코아티를끼리 언어를 주고받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독자마당

### 5·18 추모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 됐으면

해마다 5월, 그날이 오면 광주 시민들은 숙업한 분위기에서 그날을 기리고 되새긴다. 그때 쫓겨온 나이에 민주화의 열망을 안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수많은 넋들을 위로하며 우리 선후배 동료들은 아픔과 비통함으로, 그리고 자랑스런 긍지로 여기며 그분들의 송고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도 다짐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 5월, 광주의 참 모습을 알리는 추모관이 무려 27년만에 문을 열고 그때의 부활을 알린다고 한다.

분위기도 물론, 빛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국립 5·18 묘지가 민주주의 성지임을 표현했다고 한다. 역사는 응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5·18 당시 잔인 무도하게 총칼을 겨누었던 그들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서했다. 하지만 이방의 진정한 민주주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진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번 추모관도 진실과 기억, 그리고 부활이라는 상징성을 표현했다고 들었다.

아무쪼록 이번엔 개관하는 5·18추모관이 이방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광주 시민의 민주주의 열망과 송고한 뜻을 알리는 곳,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 시설

## 도 넓은 공무원 복지후생 국민은 '봉'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내 식구 챙기기'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회 통 병가' '수업 휴가' '봉사활동 휴가' '미혼직원 미팅 주선' '연간 5차례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 들지도 보지도 못한 혜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늘린다고 해도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기관으로서 너무 지나쳤다.

전국의 16개 광역·기초단체들이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투병·사망 해결 등 긍정적인 내용을 적지 않게 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은 생각하지 않은 도를 넓은 내용이 너무 많다. 전북 안주군의 '수업휴가'는 명목조차 생소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 소속 공무원들의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혈세로 봉급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을 주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는 성회통 피해자도 최장 2개월간의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서울 종강구는 미혼직원들에게 연 1회 미팅을 주선한다고 했다. 지자체가 휴가 소신인 결핵상담소인지 분별할 수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영광군은 조원임업사무소 재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가족 중 1명을 상급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보성군은 읍·면의 필요일 당직은 재택근로로 한다고 단협에 명시했다. 이는 '조직 이기주의'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복지후생 증진은 업무효율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하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이 어야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복지후생은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다.

## 대선주자 '광주정신' 계승 진정성 있다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았다. 정치인들은 여김없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정치인의 참배가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올해가 대선의 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거의 광주를 방문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지난 주말과 휴일 다녀갔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곧 5·18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김혁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 의원 등도 뒤를 잇는다.

대선주자들의 '5·18 참배'는 반가운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와 전남 등 호남 민심에 접근하려는 속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민주와 평화, 화해와 통일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인에게 정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았다. 정치인들은 여김없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정치인의 참배가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올해가 대선의 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거의 광주를 방문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지난 주말과 휴일 다녀갔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곧 5·18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김혁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 의원 등도 뒤를 잇는다.

대선주자들의 '5·18 참배'는 반가운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와 전남 등 호남 민심에 접근하려는 속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민주와 평화, 화해와 통일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가.

## 無等鼓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노부부의 황혼이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이혼이 일반화된 듯하다.

이혼이 잦은 연예인들은 차치하더라도 상대의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 이혼하는 경우, 노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이혼하는 경우 등 상식을 벗어난 이혼도 많다. 그런가 하면 남편의 폭력이나 도박·음주를 참지 못해 이혼하는

기간을 3주로 해 시범 운영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의결되면 모든 법원에서 정식으로 시행되게 된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7천107쌍. 이 중 19.1%가 협의이혼을 취했다. 2005년 2월 이전 취할 7~8%의 두 배가 넘는다. 수원지법의 경우도 지난해 5월 이 제도

## 이혼 숙려제



경우, 성격 차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 등 이혼의 사유도 다양하다. 주례와 가족·친지를 앞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라도 사랑하겠다'고 했던 서약이 무색하게 된 오늘날의 세대다.

그런데 몇 해 전 법원이 도입한 이혼숙려제가 최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혼숙려제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다. 이혼으로 파생되는 자녀양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지난 2005년 3월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한 이후 현재 수원지법 등에서 숙려기간을 3주로 해 시범 운영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의결되면 모든 법원에서 정식으로 시행되게 된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8천 531쌍으로, 이중 23%가 이혼을 취했다.

도입 이전 1년동안 협의이혼 신청자의 취할율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된다. 2005년 2월 이전

오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오후 3시에 이혼확인등본에 법원의 도장이 찍혀 남남이 됐던 것과도 판판이다.

성직자·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담제와 함께 상처(?) 난 부부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의 길을 모색하는 촉매제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가) 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0195)
편 집 부 2200-629	문 회 상 황 부 2200-626	광 고 부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치 부 2200-616	여 령 매 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